

「三代」의 登場人物考

姜 仁 秀*

- | | |
|-----------------|---------------|
| I. 머리말 | (3) 中和的 進歩主義者 |
| II. 본 말 | (4) 들뜬 젊은 世代 |
| (1) 封建的 閉鎖的 人物 | III. 맺음말 |
| (2) 開化의 過渡期的 人物 | |

I. 머리말

春園을 啓蒙主義로, 東仁을 藝術主義 내지 民族主義 作家로 볼 때, 橫步 廉想涉은 우리 나라 近代 散文文學을 定立한 寫實主義의 巨匠이라 할 수 있다.

橫步(1897~1963)는 서울의 中流家庭에서 태어난 서울토박이로 40여년을 文學과 新聞의 文筆에 一貫했으며 獨立不羈의 強靱한 정신으로 散文文學에 몸을 바쳤다. 知識人에 대한 日帝의 彈壓이 苛酷해지고 曲筆을 強要할 때 滿州로 避身하여 節操을 지켰다.

1920년 「開關」誌에 <標本室의 靑개구리>를 始發로 하여 28편의 장편, 148편의 단편, 100여편의 평론 등 500여편이나 되는 방대한 작품을 남겼다.¹⁾

橫步文學의 特性²⁾은 傾向上의 單一性(思想的 固定性)과 純客觀的 表現方式 그리고 非大家性的의 셋으로 볼 때,³⁾ 1931년 1월부터 朝鮮日報에 連載

* 釜山工專 專講

1) 金炳翼：韓國文壇史，一志社，1973.10, p.55.

2) 趙演茲：韓國現代文學史，成文閣，1972.10, pp.380~386.

3) 郭鍾元氏는 '廉想涉作品解說'(韓國代表文學全集 3, 三中堂, 1971.7)에서 韓國文學의 先驅者, 寫實主義 내지 自然主義文學을 理論과 實際作品으로써 導入, 文學批評과 理論을 서투르게나마 開拓, 지나친 非大家性, 풍부하고 독특한 어휘와 구문, 重厚하고도 예리한 人生에의 投視, 이 여섯가지를 그의 文學的 또는 文學史的 特徵으로 들고 있다.

한力作「三代」는 그의 作品 중에서뿐만 아니라 植民地下的 작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作品이다.⁴⁾ 「三代」는 3.1 운동 以後의 1920 年代 서울의 富者 趙氏一家 곧 祖父·子·孫子의 三代가 日帝植民地에서 어떠한 意識과 行動으로 살아가고 있나 하는 그들의 生活相을 寫實主義 手法으로 리얼하게 파헤치고 있다. 「三代」는 그 어느 作品보다도 그 當時 時代相을 正確하고 強烈하게 反映하고 있다.

1920 年代는 思想的으로 民衆意識이 內面에 도사린 時代요, 西歐로부터 마구 들어온 各種의 藝術思潮, 거기다 蘇聯으로부터 日本을 거쳐 이 땅에 들어온 마르크시즘이 知識人들에게 病的이고 狂的으로 點染되던 때다. 또한 어정쩡한 西歐의 合理主義와 基督教가 西歐文物을 타고 傳播되던 時代다. 한편, 文人들에게도 많은 問題를 던진 時期⁵⁾로 日帝의 植民政策強化, 海外的 獨立鬭爭, 社會主義와 民族主義의 統合과 離散, 都市와 農村의 조합문제, 브나로드문제, 그리고 東京文壇을 통한 亞西歐의 外來思潮의 流入 등등.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 西歐文化의 新風潮를 白眼視하고 頑強히 封建主義의 傳統을 지켜나갔던 一群의 勢力도 상당했다.

「三代」는 이러한 時代에 그 時代의 人間들, 특히 知識人이 가지고 있는 苦惱와 封建舊世代의 沒落을 鮮明하게 亂刻시키고 있다. 이러한 狀況은 橫步가 오랜 政治部記者 生活을 한 것과도 깊은 關聯이 있을 것이다. 특히 本考에서는 韓末世代⁶⁾인 祖父 조의관, 開化世代인 아들 상훈, 植民世代인 孫子 덕기의 세 人物들의 性格과 意識을 作品 自體를 土臺로 하여 考究하고자 한다.

4) 「三代」에 대한 이와 類似한 評價는 金允植·김현(韓國文學史, 民音社, 1973.8, p.58), 任重彬(否定の文學, 한일문고, 1972.4, p.16), 金炳翼(前掲書, p.55), 白鐵(國文學全集, 新丘文化社 1972.3, p.323) 諸氏들이 言及하고 있다.

5) 金允植: 韓國文學史論攷, 法文社, 1973.9, p.191.

6) 金允植(前掲書, pp.190~193) 氏는 廉愬涉과 蔡萬植의 「三代」와 「太平天下」를 比較하면서 조의관과 윤지원을 韓末世代, 상훈과 창식을 開化世代, 덕기와 종학을 植民世代로 다루고 있다.

II. 본 말

小説은 어떤 意味에선 퍼시·라복크(P. Lubbock)의 말처럼 登場人物의 性格創造이며, 새로운 人間型의 創造作業⁷⁾인 것이다. 그러므로 小説의 展開는 登場人物들이 펼치는 人生이며 性格創造(characterization)야말로 主題와 構成을 이루는 根幹이 된다 할 수 있다. 「三代」는 個性의인 登場人物의 性格이 지니는 이야기며, 이들 三代의 個性과 意識은 當代의 時代相과 聯關되어 世代交替의 振幅을 지닌다. 祖父·子·孫子의 三代에 變化가 登場하여 第四의 性格을 形成하고 있다.

(1) 封建的 閉鎖的 人物

祖父 조의관은 칠순에 접어든 노인으로서 趙氏家를 끌고 가는 카리스마의 存在로 封建主義의 典型의 人物이다. 그는 아들 상훈부부, 손자 덕기부부, 행랑채의 원삼이부부, 후처 수원집과 그 딸 귀순이, 덕기 누이, 지주사, 한의, 칩모 등 大家族의 家長답게 門閥과 傳統을 固守해 나간다.

조의관에게는 평생의 오입이 몇 가지 있었다. 하나는 을사조약 한참통에 그때 돈 이만냥 지금 돈으로 사백원을 내놓고 사십여세에 옥관자를 붙인 것이다. 차함은 차함이로되 오늘의 조의관이란 백호(宅號)가 아주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요 또 하나는 육년전에 상배하고 수원집을 들여 앉힌 것이니 (중략) 맨 나중에 하는 오입이 이번 대동보소를 맡은 것인데 이번에는 좀 단단히 걸려서 이만냥의 열곱 이십만냥이나 쓴 것이다.⁸⁾

윗글에서 玉貫子 買收는 階級的 劣等意識을, 大同譜所는 封建的 門閥主義를, 수원집을 들여앉힘은 個人的 慾望의 發散을 뜻하는데,⁹⁾ 이는 곧 常民의 兩班化다. 이와 같이 常民이 典型的인 封建階級인 兩班으로의 身分格

7) 鄭漢淑：小説技術論，高大出版部，1973，p.83.

8) 韓國代表文學全集 3，三中堂，1971.7，p.62. 以下「三代」의 地文 引用은 모두 그 페이지만을 記錄하기로 한다.

9) 吳鉉奉：「三代」小考，國語國文學 第17號.

上은 賣官賣職이 있었던 李朝末의 한 時代的 樣相이기도 하다. 조의관이 돈으로 兩班이 되고 祖上을 꾸어와서 趙氏一家를 格上시키고 짚더짚은 後妻를 取하는 것은 실상 外道가 아니라 그로서는 가장 價値있고 보람있는 人生一代의 偉業을 敢行한 것이다. 조의관은 자기가 쓴 돈이 <부친이 물려준 천냥에서 범용한 것이 아니라 자수로 더 늘린 속에서 쓴 것이니까 그리 아깝지도 않고 선고(先考)의 혼령에 대해서도 떳떳하다고 자긍하는 것이다.>(p. 62)

그는 常民으로 財物을 모아 家勢를 일으키고 아들과 손자를 最高學部까지 工夫시키고 留學도 시킨다. 그에게는 自身の 榮達과 祖上 그리고 家門外에는 눈꼽만큼도 돌아보지 않는다. 社會나 이웃에 대한 獻身이나 奉仕와는 아예 거리가 멀다. 그리고는 自己 뜻대로 조상숭배를 거역하는 예사쟁이 아들을 憎惡하며, 財產과 家系를 건너 뛰어 孫子에게 물려 준다.

자신의 재산은 아들은 믿지 못할 것이어서 받은 덕기에게 물려 줄 것이요 그 나머지는 내가 쓰고 싶은 데 쓰다 남으면 공평히 나누어 주고 갈테다.
(p. 66)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한달에 한번이라도 들여다보는 것이지 내가 아무 것도 없어도 돌아다보기는커녕 고려장이라도 지낼 놈이 아니야, 어서 나가 거라, 이 자식 조상을 꾸어왔다는 자식은 조가가 아니다. (p. 66)

내가 죽은 뒤에 기도를 어떤 놈이 하면 내가 황천으로 가다 말고 돌아와서 그 놈의 헛바닥을 배놓겠다. (p. 61)

조의관은 아들 상훈을 아예 버린 자식 취급을 하며 손자 덕기를 생각하면서도 <앞으로 십오년만 더 살아서(십오년이면 여든 두셋이 된다)안방까지인 수원집의 몸에서 아들 하나만 더 낳겠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태기가 있다면 죽을 때는 열다섯 먹은 상재 하나는 샷갓가마를 타고 따르리라는>(p. 61) 공상을 하기도 한다. 칠순 나이에 아들을 하나라도 더 두려는 封建的인 思考를 엿볼 수 있다.

조의관은 健康이 惡化되자 京都에 留學 떠난 손자 덕기를 부른다. 臨終

이 가까왔음을 알고 덕기에게 열쇠꾸러미를 주면서 이렇게 遺言한다.

공부가 중하나 집안일이 중하나? 그것도 배가 없어도 상관없는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나만 눈감으면 이 집속이 어떻게 될지. 너도 아무리 어련에다만 생각해 봐라. 졸업이고 무엇이고 다 단념하고 그 열쇠를 맡아야 한다. 열쇠 하나에 네 평생의 운명이 달렸고 이 집안 가운이 달렸다. 너는 그 열쇠를 붙들고 사당을 지켜야 한다. 네게 맡기고 가는 것은 사당과 그 열쇠 두가지뿐이다. 그외에는 유언이고 뭐고 다 쓸데없다. 이때까지 공부를 시킨 것도 그 두 가지를 잘 모시고 지키게 하자는 것이니까 그 두가지를 버리고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송장 내놓고 장사지내는 것이다. 또 공부도 그만큼 했으면 지금 세상에 행세도 넉넉히 할 게 아니냐. (pp. 169~170)

그를 양반으로 만든 돈, 그 돈이 들어 있는 금고의 열쇠, 그리고 돈으로 잘 가꾸어 놓은 사당, 조의관에 있어서 열쇠와 사당은 그의 인생의 전부인 것이다. 사당은 儒敎의 門閥主義와 祖上崇拜思想을 나타내며 열쇠는 財産守護 곧 拜金主義를 象徵한 것이다. 이 둘은 조의관의 人生觀이다. 그래서 自身の 世界觀과 相反된 아들 상훈을 밀쳐낸다. 그리고 조의관의 이러한 擁固執的인 人生觀은 個人的 榮達과 享樂에만 專念하게 되고 그를 爲한 手段으로서 돈에 絶對的 價値를 賦與한다. 三代에 登場하는 人物들이 펼치는 葛藤은 모두가 돈이 그 중심이 된다. 그것은 조의관의 죽음으로 더욱 深化된다. 各者가 자기에게 돌아올 遺産 畧 때문에 조의관의 죽음을 생기찬 눈으로 바라본다. 趙氏家의 안방마님 수원덕, 상훈의 妻, 덕기의 妻끼리의 不和도 돈이 그 중심이 된다. 실제로 돈의 올바른 管理는 예나 지금이나 한 家庭 나아가 한 社會의 和睦과 不和의 根源이 됨은 엄연한 사실이다.

儒敎의인 傳統과 遺習에 얽매인 그는 자신의 돈을 個人的 榮達 곧 立身揚名에만 專用한다. 조의관의 죽음은 封建的 閉鎖的 存在의 消滅을 象徵한다.

(2) 開化의 過渡期의 人物

아버지 상훈은 표면적으로는 基督教信者(장로)로 또는 敎育者로 행세하

는 新世代의 心像을 지닌 인물로 되어 있지만, 內面生活에 있어서는 위선과 비인도적인 향락에 탐부된 인텔리로 등장되고 있다.¹⁰⁾ 곧 그는 自我 속에 철저히 自閉되지도 못하고 또한 開放되지도 못한 어정정한 過渡期的 悲劇의 人物이다.¹¹⁾ 상훈은 西歐文化의 現場에서 2년간이나 생활하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와 느린 말투, 도도한 응변으로 설교하는 깨끗한 신사로 進取的이고 改革的인 面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不道德하고 放蕩스런 點이 한들이 아니다. 아들 덕기의 동창생 홍경애의 집안을 돌보아 주다가는 동정이 변하여 나중에는 첩으로 삼게 되고 경애는 상훈의 애를 낳고 <바커스>란 주점에 나가게 된다. 상훈은 그애를 호적에 넣고 평생 기르고 살아 잘 뜻을 내어놓으라고 아버지에게 대든다. 또 한편 상훈은 몰락한 양반의 딸 김의경을 첩으로 삼는다. 김의경은 유치원 保姆로 있으면서 밤에는 酌婦노릇을 한다. 상훈은 술집<바커스>와 <매당집>에 출입이 잦다. 상훈의 酒色雜技의 방탕한 생활은 아버지 조의관의 꾸중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다시는 오지도 말고 죽어도 알릴 리도 없으니 어서 가서 술집에고 계집의 집에고 틀어박혀 있거라. (p. 149)

무슨 잔소리를 그래도 뻔뻔히 서서 하는 것이냐? 어서 가거라! 네 자식도 너따위를 만들 작정이냐! 덕기는 내가 길르고 내가 공부를 시키는 터이다. 너는 낱달 뿐이지 네 손으로 밥 한 술이나 먹고 학비 한 푼이나 대어 주었니? 내가 아무려면 너만큼 못 가르쳐 놓겠니? 잔소리 말고 어서 가거라! 도덕이니 박애니 구원이니 하면서 제 자신 하나 못 가르치는 놈이 입으로만 허울 좋은 소리를 떠들면 세상이 잘 될 듯 싶으냐. (p. 33)

조의관은 대등보소에 관한 일이나 조상 산소에 石物을 세우고 治山하는 일도 아들 상훈은 제껴놓고 조카 창훈이와 의논한다. 상훈은 재산상속에 있어서도 度外視되어¹²⁾ 덕기의 반의반도 유산받지 못한다. 장례식에서도 疎外 당하게 된다. 여기서 西歐文化를 남먼저 깨친 知識人이 왜 이렇게 되고 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원인은 상훈의 性格과 그 時代相에서

10) 申東旭：韓國近代文學論，博英社，1972.3，p.93.

11) 吳鉉奉：前揭書.

12) 재산상속은 상훈-삼백석, 덕기-천오백석.

찾을 수 있다.

開化期の 知識人들이 저마다 政治的 抱負를 가지고 留學하여 가장 進取的이고 自由主義적인 思想을 배워 歸國했지만, 이미 祖國은 植民地가 되었다. 鬭爭할 積極性을 지니지 못한 그들은 深刻한 울적과 좌절의식을 맛보게 된다. 그리하여 政治的 좌절의 次善策으로 教育和 教會에 힘쓰게 된다. 그러나 뚜렷한 自己批判意識이 缺如된 상훈은 經濟權을 쥔 儒敎的 封建的인 아버지에게 排斥 당한다. <종교가 달라서 제사 안 지낸다고 만드 시부모의 임종까지 안하리라고야 할 수가 있겠음니까?>(p. 33)하고 유화 적이고 순종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認定을 받지 못한다. 한푼 제 힘으로 벌 어보지 않고 부친의 재산에 의지하는 나약한 지식인은 사회와 가정에서 좌절과 갈등을 겪게되어 자신의 逃避處를 酒色에서 찾게 된다. 그래서 덕기의 말처럼 <어쨌든 부친은 봉건시대에서지 금시대로 건너오는 외나무다리의 중턱에>(p. 34)선 存在가 된다. 그리고 보면 그의 사회적 地位와 奉仕는 한갓 허울과 허영에 불과하며 기독교는 그에게 閉鎖된 社會에 있어서 政治的 挫折의 避身處라 할 수 있다. 곧 상훈은 西歐文明을 수박겉핥기식 으로 受容하여 그 時代狀況을 打開할 意志는 전혀 없고 安逸과 放縱의 生活을 하게 된다. 그러나 同年輩이면서도 흥경애의 아버지나 병화의 아버지, 필순의 아버지들은 基督教 信者이며 抗日의 鬭爭을 하기도 한다. 상훈은 병화의 말처럼 <조부에게는 基督教의 異端이었고 아들 덕기에게는 시대의식으로서의 이단>(p. 163)이 되어 버렸다.

韓末世代인 조의관이 利己主義 立場에서 과거 風俗을 固守하고 植民地 社會를 合理化한 데 비해, 開化世代인 상훈은 과거의 모든 것을 破棄하고 새것만을 부르짖다가 그것이 濶用될 狀況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挫折과 敗北感에 젖어 無氣力해지고 放蕩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이다.

조상훈의 부인 역시 男便의 蓄妾¹³⁾이나 放縱에 대해 憎惡만 할 줄 알지 覺醒시키려 들지 않는다. 상훈은 낮에는 教會에서 점잖은 說敎를 하나 밤

13) 蓄妾은 상훈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樣相과 角度는 달랐지만 祖父의 수원집이나 덕기의 필순도 이에 準한 다 할 수 있다.

이런 酒色에 빠지는 二重的 性格을 지녔다.

상훈은 封建意識을 否定하면서도 近代西歐文化를 잘못 受容한 地主의 아들로 二重的 性格을 가진 開化期의 過渡期의 人物이다.

(3) 中和의 進歩主義者

孫子 덕기는 近代的 知識青年으로 自由主義와 建設的인 새 世代를 包括하는 人物이다. 그의 人間性은 善良하나 人生에 대한 開拓精神이나 鬪爭精神 또는 어떤 일을 해나갈 강한 推進力은 없다. 모든 面에서 順應과 中和로써 일을 打開해 나간다.

<그의 얼굴은 해사하게 생겼고 성격은 명쾌한 가운데도 안전하고 순편한 편이요>(p.20) <너무 다심하고 다감하니만큼 무엇을 보거나 듣고는 혼자 깨름해하는>(p.45) 것이다. 또한 그는 <스물셋이 되도록 인생고초라고는 감기나 앓아 보았을까 그 외에는 소설책이나 영화의 생활을 통하여 밖에는 모르고 자랐다.>(p.21)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尊重하지는 않으나 미워하지는 않으면서 時代의 不幸과 個人的 弱點을 同情한다. 아버지가 刑事問題에 관련되었을 때도 祖父의 돈을 몰래 훔쳐가서 아버지의 편에 선다. 조의관이 老患으로 留學중인 자기에겐 여러번 전보를 쳤을 때도 融和를 위해 모두 다 받아보았다고 한다.

그는 祖父가 勤하는 傳統的 儀式에 順從하면서도 盲目的 奴隸가 되기를 拒否한다. 영화의 無產運動을 理解하지만 그에 同調하지는 않는다. 금고지거나 사당지기로 머물 것을 거부하면서도 祖父의 財産相續을 받아들인다. 덕기는 祖父와 父親 그리고 영화로부터 攻擊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 그들의 擁護를 받는다. 어찌보면 그의 이같은 和解的 態度가 自拋自棄의 無能이나 優柔不斷을 뜻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外部의 葛藤을 자신의 갈등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解消할 새로운 길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그 길은 漸進的 進歩思想 내지 穩健한 自由主義의 길이다. 이는 영화와의 對話속에서나 영화에게 보낸 편지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어쨌든 부산운동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냉담히 방관만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제일선에 나서서 싸울 성격도 아니요, 처지도 아니니까 차라리 일간 호졸격으로 변호사나 되어서 뒷일이나 보면 좋겠다. (p.73)

투쟁은 극복의 전수단은 아닐세. 포용과 감화도 극복의 유산탄(榴散彈) 만한 효과는 있는 것일세. 투쟁은 전선적 부대적(全線的 部隊的) 행동이라 하면 포용과 감화는 징병과 포로를 위한 수단일세. 포용과 감화도 투쟁만큼 적극적인 일세. (p.125)

행복은 언제나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실현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만과 갈망의 노력에서 맛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네. 그렇지 않고야 이 피로운 세상을 어떻게 산단 말인가? (p.127)

때는 흘러가는 것이요, 조부가 돌아가고 새 사람 새 살림 새 시대가 바뀌어 틀렸지마는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p.266)

또한 조덕기가 친구 병화를 통해 병화 하숙집의 딸 필순이에게 많은 정을 느낀다. 필순의 아버지는 사회주의 운동으로 고초를 당하여 필순 자신도 프롤레타리아임을 자처한다. 덕기가 느끼는 필순에 대한 사랑은 조부의 수원집에 대한 관계나 부친의 경애나 김의경에 대한 관계와는 사뭇 다르다. 덕기가 병화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왜 이처럼 필순양에게 열심이냐고 의심하는 모양이데마는 길 가는 손이 바위틈에 돌아난 가련한 꽃 한 송이를 쥐는 것은 욕심이요, 죄일지 몰라도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느끼지 말라는 것도 안될 일이요, 흙 한 줌 북돋아 주고 가기로 그것을 뒷날에 크거든 화초분을 가지고 와서 모종 내 갈 더러운 이해타산으로만 보는 것은 사람의 자유라 하여도 너무나 물똥취 물인정한 일 이 아닌가?…… (p.127)

以上에서 우리는 덕기가 融和的 性格을 띤 進歩主義者임을 看破할 수 있다.

김현氏¹⁴⁾는 橫步가 保守主義的인 世界觀을 지녔기 때문에 덕기를 내세워 開化世代를 批判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再考되어야 할 것 같다. 덕기는 保守主義者라기보단 中和的이며 漸進的인 進歩主義者인 것이다.

14) 김현·김윤식: 現代韓國文學의 理論, 民育社, 1973.3.

(4) **들뜬 젊은 世代**

덕기의 친구 병화는 마르크스주의자로 無産運動을 벌이는 知識青年이다. 이 小說의 初半은 덕기와 병화의 만남과 友情으로 시작된다.

이 지적(理知的)이요 이론적(理論的)이기는 들이 더하고 덜한 것이 없지마는 다만 덕기는 있는 집자식이요, 해사하게 생긴 그 얼굴모습과 같이 명쾌한 가운데도 안온하고 순한 편이요, 병화는 거무테테하고 유물유물한 맛이 있으니만큼 남에게 좀처럼 머리를 숙이지 않는 고집이 있어 보인다. (p.20)

들은 知識人이란 점이 공통이지 사실 그 환경이나 사상은 원연 다르다. 병화는 교회신봉자인 아버지를 반대하여 집을 뛰쳐 나와 필순네 집에서 하숙한다. 늙아빠진 외투를 걸치고 다니는 궁색함에도 덕기에게 종종 신세를 지면서도 큰소리 한다. 다음의 대화를 통해 友情과 병화의 性格이 잘 나타난다.

「그러지 말고 그야말로 타협을 하고 댁으로 들어가게. 언제까지나 이런 방랑생활을 하고서 무슨 일이 되겠나?」

「타협? 요컨대 아버지와 타협이 아니라 밥하고 타협하고 밥을 옹호하는 뿌르조아지이의 파수병정하고 타협을 하라는 말이지」(p.43)

「나 없을 땐 소동 담배를 끊게그려……그저 담배 한개라도 착취를 해야 시원하겠나? 자기와 나와는 착취 피착취의 계급적 의식을 전도시키세.」

「담배 하나에 치를 떠는—천생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다.」(p.19)

서로 相反된 환경과 사상과 성격의 소유자가 깊은 友情을 지니는 것은, 병화가 없는 돈을 덕기가 대고 덕기로서는 병화를 통해 필순을 접할 수 있는 相互補完的 心理가 裏面에 깔려 있고, 또한 다같이 敎會信奉者인 父親에 대한 不滿이 作用되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主義者 병화란 人物은 실익은 知識人들이 無批判的으로 받아들인 마르크스주의에 感染되어 積極的인 心醉에 빠져버린 當時의 時代相을 反映하고 있다. 知識人이면 누구나 마르크스신봉자인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당시의 時代風潮였다. 중학에

들어가서 思想이 突變한 그는 목사인 아버지와 義絶하고 집을 뛰쳐 나온다. 基督教의 否定은 勿論이요 封建의 地主도 전면 罵倒했으며 오직 無產 大衆을 위한 鬭爭만이 目標였다. 그 當時 우리 社會는 마르크스理論을 受容할 만한 知的 體系도 그것이 適用될 資本主義의 社會構造도 成熟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大學에 落榜하여 獨學으로 마르크시즘을 받아들인 병화로서는 透徹한 現實意識도 없었고 단지 偏狹하고 頑固한 盲從의 思考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充分히 轉向의 可能性을 지닌 마르크스主義者다.

「지금 누가 돈 천은 고사하고 돈 백만 주어보슈. 주의구 사장이구 바람의 세틸이지」

「당장 입에 풀칠을 할 수 없는데다가 속에 똥만 들어 앉았어두 이름은 나고 게다가 정치의 중심이 있는데니까 그런 유혹의 손이 뻗기도 쉽고 따라서 끌리기도 쉬운 일이지.」(p.121)

홍경애와 혁명가 피혁이 위와 같이 병화를 평하고 있다. 또한 혁명가 피혁이 맡긴 자금으로 반찬가게를 연 병화는 그 수입을 사회주의 운동자금으로 댈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검거선물이 붙어 사회주의자들이 구속되고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역을 치루자 그는 소시민적 화해의 가능성을 나타냈다.

병화는 자기나름대로는 確固不動한 社會正義感和 批判眼을 가지고 있다. 특히 상훈에 대한 不道德과 享樂을 여러번 꼬집는다. 그는 社會主義者이면서도 장훈처럼 동지를 위해 獄中自決하는 極左派는 아니다.

병화는 1920年代 이 땅에 流行思潮와 같은 知識青年들의 마르크스信奉을 端的으로 代辯한 들뜬 젊은 世代다.

Ⅲ. 맺 음 말

長篇「三代」는 1920年代 日帝治下의 時代相과, 카리마스적 大家族에서 일어나는 葛藤과, 西歐文明으로 因한 새로운 開化의 물결을, 또한 西歐의

自由主義를 우리의 各世代들이 어떻게 受容하였는가를 리얼하게 그려내었다.

愚直하면서도 財利에 밝은 傳統的 封建主義者인 조의관, 그는 韓末世代의 閉鎖的인 儒敎의 遺風을 固守하며, 그의 죽음은 封建主義의 沒落을 意味한다. 한편 父親의 財物로 西歐의 近代意識을 잘못 受容한 아들 상훈은 조의관과는 달리 開放的으로 社會에 參與奉仕하면서도 放蕩한 二重生活을 하는 無氣力한 一群의 開化世代를 象徵하고 있다.

社會가 辨證法的으로 發展해감을 證明이라도 하듯 모두가 破綻된 狀況下에서 中和主義者인 덕기는 封建과 開化의 葛藤矛盾을 조용히 克服하면서 새출발을 알리는 漸進主義者로 代辯되고 있다. 이와같이 「三代」에 登場하는 三代는 各己 各世代를 代表하는 典型的 人物들이다. 그리고 병화는 덕기와는 같은 世代이면서 그 當時 마르크시즘에 물든 들뜬 젊은 世代의 典型이기도 하다.

19C 프랑스의 샹플레리와 뒤랑띠는 리얼리즘을 定義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現時代의 社會環境에 대한 的確하고 完全하며 眞摯한 再現>¹⁵⁾이라 했다. 그렇다면 「三代」야말로 挫折과 逃避, 過激과 虛飾의 迷霧에서 헤매던 植民地下 社會相 時代相을 가장 잘 反映한 實實主義文學의 劃期的 作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몇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첫째 「三代」의 모든 이야기는 겨울에 始作하여 이른 봄에 끝나고 있는 즉 舊世代가 물러가고 새 世代가 到來함을 뜻하고 있다고 보아지며 이는 橫步의 未來志向의 人生觀과도 깊은 關聯이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三代」에 登場된 女人들은 모두가 沒落한 家庭의 女人이며, 이들은 한결같이 남자의 人形의 役割을 하고 있음도 看過할 수 없다. 橫步의 封建的인 作家觀 때문일 것이다.

세째 橫步를 일컬어 寫實主義의 大家, 透徹한 文學精神으로 一貫한 大

15) 金澤東: 韓國에 있어 프랑스의 自然主義, 「韓國文學의 比較文學의 研究」, 一潮閣, 1972, pp. 62~63.

作家로 韓國文學史에 길이 빛날 功績을 남긴 分 等으로 評價되고 있지만, 발표 당시에도 지금도 가장 읽히지 않는 것, 단지 몇 안되는 文學研究家들에게만 억지로 읽히고 있음은 이 문제에 對해 文學에 뜻두는 사람으로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리라.

일반적으로 讀者에게 感動과 재미를 주지 않거나 너무 難解할 경우 읽히지 않는다고 한다. 橫步의 境遇 그 원인은 끈끈하고 싸늘한 문장에 있다. 文章 文體는 곧 作家란 말이 있다. 끈질기게 투철히 파고드는 객관적인 묘사와 서술이 싸늘하고 매정하게 별다른 변화의 美를 주지 않고 있으니 어찌 지루하고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柳宗鎬氏¹⁶⁾도 지적했듯이 또 하나의 원인은 素材의 凡俗性에 있다. 大衆的인 快樂追求나 極烈한 危機感도 없는 都市의 중심층과 소시민층을 등장인물로 다루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장면이 없다.

「三代」는 많이 읽히지 않으면서도 名作에 屬하는 作品이다.

16) 柳宗鎬：現代韓國作家研究，民音社，1976，p. 94.